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과 원인 : 지구화의 충격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구 춘 권 | 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이 논문은 테러리즘의 최근 발전경향을 분석하면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현대의 테러리즘을 메가테러리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메가테러리즘은 인명피해를 테러작전의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명희생을 의도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즉 폭력논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화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지칭한다. 테러리즘의 국제화 및 종교적 근본주의의 테러집단으로의 유입은 메가테러리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가 사회의 균열을 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균열은 지구 곳곳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유독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지구화, 이슬람 근본주의, 알카이다(Al Qaida)

* 이 논문은 2004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Bill Clinton)은 1998년 9월 21일 유엔의 제53차 정기총회의 개막연설에서 새로운 테러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1990년대에 테러리즘은 새로운 모습을 획득하였다.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정보 및 무기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및 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테러의 새로운 기술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점증하는 이동성의 결합은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다른 공격들에 대한 취약함과 관련하여 불안한 전망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인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일종의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Frankfurter Rundschau, 1998. 9. 22).”

이 경고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지구 곳곳의 현실이 되었다. 2001년 9월 11일의 사태는 무려 3,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온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 충격적 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물결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4월 투네지아의 휴양섬 제바의 한 유대교회 앞에서 터진 자동차 폭탄은 19명의 관광객을 살해하였다. 같은 해 5월 파키스탄의 카라치의 자살폭탄 테러는 프랑스인 11명을 포함해 15명을 죽였다. 2002년 11월 인도네시아 섬 발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폭탄테러는 무려 2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같은 달 28일 케냐에서 일어난 세 건의 자살폭탄 테러는 9명을 죽였고, 몸바사를 이륙했던 한 이스라엘 민간항공기는 자신을 겨냥한 지대공미사일을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다. 2003년 5월 미 국무장관 파워(Collin Powell)의 방문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의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세 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해 34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달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동시에 터진 여러 발의 폭탄은 43명의 목숨을 빼앗고 100명을 부상시켰다. 같은 해 11월 터키 이스탄불의 테러 역시 55명의 인명희생과 5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다. 2004년 3월 2일 이라크 바그다드와 케르발라에서 일어난 자살폭탄테러는 300여 명에 가까운 시아파

민간인들의 죽음을 가져왔다. 또한 거의 같은 시간 파키스탄의 도시 퀘타에서 발생한 시아파 교도들의 이슈라 경축행렬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격은 50여 명을 살해하였고 15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2004년 3월 11일 출근으로 북적대는 마드리드 중심가 세 곳의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들에서 동시에 폭탄이 터지면서 무려 191명이 죽고 1,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마드리드 테러가 일어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바그다드에서 터진 자동차폭탄은 또다시 3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특히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복되는 자살폭탄 및 자동차폭탄 테러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지구 곳곳은 그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도쿄 테러”에 대한 우려가 들려오며,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테러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테러리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테러리즘의 최근 발전경향은 어떻게 특징지어질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으로 지칭하려는,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테러리즘 확산의 근원지 격이 된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상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알 카이다의 조직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테러리즘을 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려는 시도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테러의 목표 및 수단은 물론, 원인·배경·조직·충원방식 등에 대한 차별화된 분석을 전제하고 있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리즘과 달리 여러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우선 테러리즘을 정의하고, 테러리즘의 역사적 발전경향을 분석한 뒤,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현대의 테러리즘을 메가테러리즘으로 규정하려 시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오늘날 메가테러리즘이 등장한 원인 및 그것이 확산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메가테러리즘이 지구화의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균열,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근대

이슬람 세계가 서구와의 대면에서 겪은 충격적인 역사적 상처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등장배경에 대한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이 글은 강조할 것이다. 제3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날 가장 위협적인 테러조직으로 부상한 알 카이다(AI Qaida)의 조직적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격인 제4장은 메가테러리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테러리즘의 최근 발전경향과 메가테러리즘

1.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테러리즘은 대단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은 관찰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테러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테러리스트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남일 뿐이다. 반테러협약을 제정하려는 유엔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은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¹

테러리즘의 어원은 프랑스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테러라는 단어는 원래 자코뱅의 공포정치(régime de terreur)를 지칭하는 데서 처음 사용되었다(Brunner, 1990: 324). 이 시기부터 테러는 일반적으로 공포에 기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보다 넓게 테러를 정의할 때, 테

1. 9·11테러가 일어난 지 3주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189개 모든 회원국들이 테러와의 싸움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명시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수십 년 동안 반테러협약의 주창자들이 주장해 온 것이 단숨에 실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의가 테러리즘에 대한 합의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방관적 입장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커진 정치적 압력이 이 결의를 가능케 하였음은 물론이다.

러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 일반을 지칭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집단의 테러행위들은 물론 국가에 의한 테러 역시 포함된다. 반면 국가기관에 의한 테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비합법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조사국(FBI)은 테러리즘을 “정부 또는 민간인들, 혹은 그의 일부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들 및 소유에 대한 비합법적인 강제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Scheerer, 2002: 21)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이와 유사하게 테러리즘을 “흔히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소유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해 정부나 사회를 협박하는 행위”(Scheerer, 2002: 21)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저명한 테러전문가인 헤스(Hess, 1988)는 테러리즘을 ① 의도적으로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②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체계적으로 준비된, ③ 직접적인 희생자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④ 일정한 정치적 전략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트만(Waldmann, 2000)은 테러리즘을 특정 정치질서에 대한 비합법의 영역으로부터, 일반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함과 동시에 동정 및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준비된 충격적인 폭력적 공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라퀘르(Laqueur, 1996)는 테러리즘을 지배세력을 약화하거나 전복하고, 또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회에 공포를 조성하는 의도를 지닌 폭력의 사용 또는 협박이라고 정의한다. 호프만(Hoffmann, 2001) 역시 공포분위기의 의도적인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을 정치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수백 개의 다양한 정의를 비교분석한 히르쉬만(Hirschmann, 2002)에 따르면, 이들 정의 중 83.5%가 폭력과 강제에 우선 주목하고 있으며, 65%는 정치적 배경을, 그리고 51%는 공포와 경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통상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①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며, ②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적 관심을 지향하고, ③ 자의적으로 선정된 상징적 목표와 인물에 대한 공격을 통해, ④ 적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는, ⑤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2. 테러리즘의 최근 발전경향

테러리즘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든지 간에 테러는 대단히 오래된 정치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테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억압만큼이나 오랜 것으로, 사회에서 주 변화된 집단들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를 종종 사용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이후 테러리즘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로 확산되었고, 그 위협 또한 점차 커져갔다. 또한 테러리즘의 확산과 함께 테러행위에도 주목할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는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복합화, 국제화, 상징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또한 대량살상을 목표로 한 테러리즘이 출현하였다.

우선 테러리즘의 복합화 또는 다양화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변화가 등장했다. 이는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는 논거에서는 물론 테러행위에 동원되는 수단, 나아가 테러집단들의 조직방식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선 테러리스트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단일한 논거를 통해서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려 시도한다. 테러행위들은 예컨대 단순한 정치적 보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 등을 연계시킨 여러 복합적 이유들을 내세워 정당화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Hirschmann, 2003: 15). 또한 테러의 공격에 사용되는 수단 역시 다양해졌고, 테러의 전술도 복잡해졌다. 폭탄 및 총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테러행위에서조차 무기의 기술적 개선 및 테러전술의 혁신과 함께 그 파괴력이 보다 강해졌다. 9·11테러는 비행기 납치라는 재래식 수단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의 상징물에 대한 자살공격이라는 충격적인 전술이 결합하면서 극적인 파괴를 가져온 대표적 예일 것이다. 최근 테러에 동원되는 수단

은 재래식 무기를 넘어 점차 생물학·화학·핵무기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및 하부구조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이버테러리즘’ 역시 현실성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Waldmann, 2000: 24).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수단들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테러리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경고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테러리즘의 복합화 현상은 테러집단의 조직구조의 변화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 테러집단이 사회로부터 일정하게 고립되어 활동하는 단순한 위계적 성격의 조직이었다면, 예컨대 알 카이다와 같은 최근의 테러조직은 네트워크적인 구조를 지닌 보다 복합적인 조직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방식은 테러집단으로 하여금 지도부에 덜 종속적이면서도 일정하게 자율적인 행동을 가능케 만든다. 테러조직의 복합화는 테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네트워크적인 조직을 지닌 분산된 테러집단에 대해 요원의 침투 및 지도부의 소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Münkler, 2004: 39).

둘째, 최근 테러리즘의 발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은 테러리즘의 국제화이다. 이미 1960년대 말 서독의 적군파(RAF),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Rote Brigade), 그리고 프랑스의 직접 행동(Action Decrete) 등과 같은 극좌파 테러집단들은 자신의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전단계는 무엇보다 1979년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합의한 평화조약에 대해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비난이 등장했다. 이란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깃발 아래 행해지고 승리한 최초의 혁명이 발생하였다. 구체제를 전복한 이 새로운 인민주의적 신정체제는 자신의 혁명모델을 걸프 지역의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 근동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및 테러집단들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 또한 1979년은 소련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진격한 해이

2.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이란혁명의 영향 아래 발생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바트

기도 하다. 소련의 침략은 이슬람 세계에 공동의 ‘성전(Dschihad)’을 정당화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 곳곳에서 ‘전사들’이 모집되었으며, 그 중 가장 유명한 자가 바로 건설 회사를 경영하는 백만장자인 빈 라덴(Osama bin Laden)이다. 테러리즘의 국제화는 테러집단의 활동영역을 크게 넓혔다. 일국적 차원의 통제를 벗어난 테러조직은 비합법영역은 물론 합법적 영역의 영리활동에도 진출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빈 라덴은 은행, 도로건설, 유통업, 농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며,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에는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röm, 2003: 88). 테러집단의 활동반경은 점차 합법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시금 테러리즘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합법적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된 이윤은 테러리스트들의 봉급으로 사용되며,³ 또한 테러집단들의 자선활동은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⁴

셋째, 테러리즘의 상징화 역시 최근 테러리즘의 주목할 발전경향의 하나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목표물에 대한 공격의 증가는 테러행위가 점차 대중매체에 의해 매개되는 일종의 의사소통전략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aldmann, 2000: 13). 올림픽과 같은 지구인 다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⁵에서는 물론,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지역민의 상징적 축제에서도 폭탄이 발견되었다. 유명 휴양지 및 관광지과 같

당 정권의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칠게 진압당했고, 경건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신성한 성소들에 난입했으며, (한 전기기사의 주도로) 이집트의 대통령을 암살했는데 이 모두가 1979-82년에 일어난 것 이었다”(홉스봄, 1997: 624). 호메이니 정권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수출 노력은 이라크의 바트당 정권과 1979년에 대통령이 된 사담 후세인을 자극하였음은 물론이다.

3. 알 카이다의 요원들은 보통 500-1,200달러 사이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예컨대 오늘날 하마스(HAMAS)와 같은 테러집단은 비단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펴기도 한다. 여기에는 빈곤층에 대한 식사 및 의류제공, 선택된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및 직업제공, 자살테러를 수행하는 이른바 ‘순교자’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등이 포함된다.
5. 1972년 9월 5일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독일 뮌헨에서 “검은 9월”이라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테러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억이 넘는 인구에 의해 추적되었다.

은 주민의 경제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은 가장 흔한 테러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9·11테러가 미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상징 및 정치·군사적 상징을 목표로 한 공격이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국제적 매체들의 의미 및 그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의 테러행위를 이들 매체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수행한다. 9·11테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발전의 정점을 보여준다. 수백 개의 인공위성들과 수십억 개의 텔레비전들을 통해 쏟아지는 화면들은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구의 모든 변방까지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카이다의 존재는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각인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최근 테러리즘의 발전경향은 무차별적인 대량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인물의 제거 또는 정치적 적의 암살 등 희생자와 비희생자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던 ‘선택적 테러(selektiver Terror)’는 오늘날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해하는 ‘보편적 테러(genereller Terror)’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있다(Hirschmann, 2003: 16). 이와 함께 테러행위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보다 잔혹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과거의 테러리스트들이 요인의 납치 또는 암살을 통해 적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가능한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적에게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다. 바야흐로 메가테러리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3. 메가테러리즘: 무차별적 인명살상과 폭력논리의 자립화

저명한 테러연구자 켄킨스(Jenkins, 1974)는 테러리스트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른바 “켄킨스-도ctrine(Jenkins-doctrine)”은 테러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사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려 행동하며, 그러기에 이

지지를 손상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을 회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젠킨스가 주목한 테러주의자들의 합리적 행동모델은 과거 서유럽 적군파의 테러, 또는 바스크분리주의자(ETA)나 아일랜드혁명군(IRA)과 같은 종족적 분리주의자들의 테러행위들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했다. 왜냐하면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목표의 실현을 위해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에 들어 몇몇 테러행위들의 경우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통해 사회에 공포와 충격을 불러일으키려는 조짐이 점차 농후해져갔다. 뮌클러(Münkler, 2004: 29)가 “폭력전략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의 자립화”라고 지칭한 현상, 즉 폭력의 논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틀을 벗어나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등장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이 경향은 보다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절대적 숫자는 감소했지만, 그러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훨씬 더 커졌다. 메가테러리즘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전단계가 열린 것이다. 여기서 메가테러리즘은 인명피해를 테러작전의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명희생을 의도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즉 폭력논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화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지칭한다(Müller, 2003: 66). 특히 테러리즘의 국제화 및 종교적 근본주의가 테러집단으로 유입된 사실은 메가테러리즘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목격되기 시작한 테러리즘의 국제화는 1990년대에 들어 보다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테러리즘의 국제화가 테러리스트들의 폭력 사용을 급진화시킨다는 사실은 과거 팔레스타인 테러단체들에 의한 민간항공기 납치사건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민간항공기 탑승객들의 사회적, 민족적 구성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공격목표의 희생자들에 비해 훨씬 더 우연적이다. 여기서 테러리스트들은 그 어떤 탑승객이라도 자의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폭력은 보다 확산적으로 사용된다.⁶ 테러리스트들의

6. 반면 요인암살 및 특정 건물의 폭파 등과 같은 전통적 테러행위들에서 폭력의 사용

입장에서 폭력의 자의적, 확산적 사용은 상당 부분 의도된 것인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테러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들이 민간항공기의 납치를 넘어 민간항공기의 폭파를 기획할 때, 폭력사용의 자의성 및 무차별성은 거의 극단에 치달는다. 1988년 록커비의 상공에서 일어난, 250명의 인명이 희생된 팬암 민항기의 폭파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사건은 여러 테러집단들의 ‘연합’에 의해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테러리즘의 국제화가 수반한 폭력사용의 자의성과 무차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메가테러리즘을 촉진시킨 또 다른 요인은 종교적 근본주의의 테러집단으로의 유입이다. 주지하듯이 사회혁명적 또는 분리주의적, 민족주의적 구호를 내세운 테러집단들은 자신들의 목표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적이 명백한 만큼 폭력사용 또한 대부분 이에 한정된다.⁷ 그러나 종교적으로 채색된 테러리즘의 경우 적은 특정한 정치권력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정의한 선과 악의 기준에서 항상 악이기 마련이다. 악과의 싸움에서 개별적인 희생은 감수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희생자들의 운명 역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Münkler, 2002: 185). 더욱이 폭력사용을 천년왕국적인 또는 묵시론적인 상상에 기초하여 정당화할 때, 폭력을 제한하는 모든 세속적 틀은 해체된다. 1995년 오콜라호마시의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시키며 168명을 살해했던 테러범 맥비(Timothy McVeigh)는 “기독교 애국주의자들(Christian Patriots)”이라는 단체의 단원으로서 아리아족의 ‘악에 대한 선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신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자백한 바 있다. 같은 해 일본의 옴진리교 추종자들은 도쿄 지하철 전동차에 사린가스를 살포함으로써 12명을 희생시키고 5,500여 명을 심각한 중독현상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 역시 천년왕국을 신봉

및 그 희생자들은 보다 제한적인 것이다.

7. 그러나 최근 체첸반군에 의한 테러 또한 무차별적 살상의 모습을 띠고 있다. 2004년 8월 두 대의 민간항공기가 동시에 폭파된 사건은 물론, 그 후 일주일 만에 일어난 모스크바 지하철역의 폭탄테러 역시 메가테러리즘의 범주로 분류된다. 한편 2002년 10월 모스크바의 오페라극장 및 2004년 9월 북오세티야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체첸반군의 대규모 인질극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는 러시아 정부의 무모한 진압작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종교적 분파에 의해 저질러진 충격적인 테러였다. 종교적 색채를 띠는 테러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 현실이다.

III.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 :

지구화의 충격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1. 지구화의 충격과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가 지구 곳곳에서 사회의 균열을 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균열에 대한 반작용은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구화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균열의 확산과정이기도 하다. 경제적 지구화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본질적인 경쟁과정을 매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생산, 무역, 직접투자 등은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는 특정 지역 혹은 국가들로 집중되며, 이 흐름으로부터 차단된 국가들의 빈곤은 - 가혹한 세계시장 지향적인 근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보다 심화되었다. 몇 가지 수치를 통해 경제적 지구화의 과정이 수반한 사회적 균열을 확인해보자.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세계총생산은 4조 달러에서 23조 달러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빈곤층의 숫자 역시 20% 이상 증가했다.⁸ 가장 빈곤한 인류의 1/5는 1960년만 하더라도 세계소득의 4%를 점유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비율은 1% 이하로 줄어들었

8.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적 도약에 힘입어 1990년대에 절대적 빈곤층의 규모는 조금 완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완화추세를 얘기할 수 없다(Stiftung Entwicklung und Frieden, 2001: 75).

다. 반면 지구의 초특급부자 350여 명의 재산의 합은 인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25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며, 빌 게이츠를 필두로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남자 3명의 재산의 합은 지구의 최빈국에 사는 6억 명의 재산의 합을 능가한다(Buchholz, 2002: 69). 이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부의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참혹한 수치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오늘날 지구에는 매일 평균 3만 5,000명의 어린이들이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재원만 있다면 충분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말라리아, 천연두, 과상풍, 천식 등)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단 이틀 동안에 죽어 가는 아이들의 수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전체를 통해 치른 인명희생(5만 8,000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Beck, 1997: 254).

그러나 지구화의 과정이 수반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균열만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정착한 소비양식, 자유시간의 활용방식, 대중문화 등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텔레비전,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혁명과 함께 이 확산은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확산이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소비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이 가져온 문화적 획일화를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소비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생활수준의 불일치는 대부분의 주변부 국가들에서 사회적 긴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인들의 하나이다.

지구화의 과정이 야기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균열, 그리고 문화적 획일화에 대한 가장 흔한 대응방식은 바로 종교적 근본주의에의 회귀이다.⁹ 요컨대 종교적 근본주의는 지구적인 근대화·세속화의 압력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순수하게 종교적 기반에 의해 건설된 공동체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변화와 불안정에 대해 맹목적인 종교적 확실성에 의지해 대응하려는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ieger, 2002: 250). 종교적 근본주의는 개인이 경험하는 엄청난 변화와 불안정에 대해 종교적 확신과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매력적이기조차 하다.

9. 이는 미국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1990년대 초반 진행한 총 5권으로 출간된 근본주의 연구프로젝트(The Fundamentalsim Project 1-5)의 결론이기도 하다(Marty and Appleby, 1991-1995).

그러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또한 폭발력을 얻게 되는 것은 근본주의적 확신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우선 종교적 근본주의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포괄적이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주민들의 종교적 정신세계에만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모든 부문에 개입하려 한다. 주민들 또는 추종자들 삶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종교적 기준에 맞추어 통제하는 것이 종교적 근본주의의 이상이며, 이점에서 근본주의는 일정하게 전체주의적이기도 하다(Hirschmann, 2003: 23). 종교적 근본주의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며, 따라서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방해하는 ‘적’ 또는 ‘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재의 정치적 질서와 사회적 규범은 바로 이 ‘악’에 의해 강제된 것이고, 따라서 지켜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세에서 억압받지만 그러나 선택된 인간으로서 자신들을 이해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적’에 대한 최후의 승리와 함께 자신의 궁극적인 종교적 구원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적의 소멸을 위한 투쟁의 참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따라서 ‘적’과의 투쟁에서의 죽음은 그들에게 ‘생명의 방기’라기보다는 ‘거룩한 순교’이자 ‘천국에 이르는 길’로 이해된다. 그러기에 빈 라덴의 “신의 전사”들은 ‘살아있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Lüders, 2001).

대부분의 종교적 근본주의에서는 물론,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¹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혼합, 또는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종교적 호소는 주민들에게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전수된 문화적 체계로서 종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 훨

10. 혹자는 이를 “정치적 이슬람” 또는 “이슬람주의”- 이슬람과 구분하여- 로 지칭하기도 한다(강봉구, 2002). 그러나 이 글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비단 아랍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물론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선호해 사용한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지구적 현상이지만, 그러나 아랍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및 이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기반하여 이슬람 근본주의가 폭발력을 얻게 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슬람 근본주의는 이슬람 교리가 정치는 물론 경제, 그리고 모든 사회활동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서구의 세속적인 물질주의를 강하게 거부할 뿐 아니라, 서구와의 대면을 이슬람 세계의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썬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바로 이점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 가치를 도구화하는 이데올로기이자 무엇보다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활동가이기도 하다(Tibi, 2001: 83).

1965년에서 1995년 사이 종교적 색채를 띤 근본주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시에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테러집단들의 수 역시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테러단체들의 약 1/4 정도가 자신의 존재를 종교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Hirschmann, 2002: 55-56). 그리고 이들이 종종 경악할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일본의 옴진리교,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인도의 힌두교 근본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어 왔다.

2.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과 그 특수성

종교적 근본주의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Tibi, 2001: 83-84; Heine, 2002: 115-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유독 아랍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히 이해될 것이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이 지구화 과정이 동반한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균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슬람 세계에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지역 - 예컨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경제적 세계화의 수혜자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 이 상대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랍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우선 아랍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자리 잡은 이슬람 왕조들의 엄청난 부와 달리, 실제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은 2003년 모든 아랍 국가들을 다 합쳐 5,3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약 4,000만 명의 스페인이 같은 해 달성한 5,95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6%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는 평균 0.7%로 극적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1991-1998년 사이의 연평균)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고려한다면, 1975년에서 1998년까지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연평균 0.5%에 불과하다. 이 성장률은 사실상 경제적 정체성을 의미하며,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이다(오직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만이 더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랍 지역에서도 개별국가들 사이의 차이는 존재한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알제리, 지부티,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소말리아, 수단과 같은 전쟁이나 내전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국가들이다.

아랍 지역의 경제적 정체는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의 발전과 비교해 볼 경우 보다 명확히 눈에 들어온다. 1981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은 아랍 지역의 절반 수준이었다. 1987년 중국의 생산량은 아랍에 거의 근접했으며, 오늘날 중국은 아랍 국가들의 2배를 생산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의 기술적 수준 역시 - 이집트와 이라크의 군사부문을 예외로 한다면 -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아랍인간발전보고서¹¹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도 아랍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1.2%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0.6%가 인터넷을 활용한다. 아랍 국가들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단지 0.5%만이 아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아랍 지역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높은 인구증가율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인구증가는 향후 심각한 갈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연령구조는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젊은 편이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아랍권의 인구는 적게는 4억 1,000만에서 많게는 4억 6,0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 1인당 연간

11.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www.undp.org/rbas/ahdr>(검색일: 2005. 1. 5)

1,000m³ 미만의 물밖에 사용할 수 없는 22개의 국가들 중 15개가 아랍권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역시 아랍 지역에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에 인구 1인당 0.4헥타르의 농지가 존재했던 반면, 1998년에 사용가능한 농지는 0.24헥타르로 줄어들었다(아랍인간발전보고서, 2002).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농의 동시적 진행은 이 지역의 많은 도시들에서 일자리도 없고, 따라서 삶의 전망 역시 가질 수 없는 청년 계층을 양산하고 있다. 이 도시들이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사회적 토양이며, 이 청년 계층이 바로 테러라스트들이 충원되는 정치적 늪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의 성공은 이 지역 정권들의 정치적 억압 및 경제적 무능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든, 또는 세속적으로 정당화하든, 아랍 지역 대부분의 정권들은 민주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비판적 사고 및 정권과 다른 정치적 견해는 폭력적으로 억압되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며, 그나마 어느 정도 정권에 반대되는 사고의 논의가 허용되는 유일한 곳이 이슬람 사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보다 많은 청중들을 발견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 폭력행위를 통해 청중들의 관심을 끌며, 또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단어로 설득한다. 아랍인간발전보고서가 누차 강조해왔듯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은 상당 부분 이 지역 정권들의 정치적 억압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아랍 지역의 억압적인 정권들은 석유수출을 통해 얻은 소득의 활용에 있어서도 무능하다. 1970년대 중반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 결과 이 지역의 국가들은 단숨에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비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지배되었던 이들 산유국은 새로운 소득을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근대화전략에 투자했던 것이 아니라, 이자리를 얻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¹² 석유채굴을 통해 얻은 대부분의 소득이 지배세력에 귀속되는 상황은 오늘날에도

12. 여기서 나온 돈이 바로 유명한 페트로-달러(Petro-Dollar)이다. 석유수출국가(OPEC)에 속한 국가들의 경상수지흑자는 1973년 80억 달러에서 1974년 600억 달러로 늘어난 바 있다(구춘권, 2000: 99).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이 소득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자선을 베풀으로써 시혜자라는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의 결과 이 물질적 양보는 점차 줄어들어 주민들로부터 수혜자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의 현실은 자연적 부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있더라도 이 소득이 억압적이고 부패한 지배세력에 의해 독점될 경우, 이러한 종류의 부는 사회발전의 지렛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Schoch, 2003).

마지막으로 아랍 지역의 낮은 교육 수준 역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학교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돈의 액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 수준 역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1983년에 60%에 달하던 이 지역의 문맹률은 1990년대 중반 43%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6,000만 명에 달하는 성인 문맹이 존재한다(아랍인간발전보고서, 2002). 낮은 교육 수준이 종교적 근본주의의 온상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리고 이는 비단 이슬람 세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 근본주의가 반(反)서구주의의 모습을 띠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유독 이슬람 근본주의는 미국에 적대적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서구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아랍 세계를 침범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었으며, 이 침략 이래 아랍 세계는 150년 동안 서구로부터 굴욕과 압박, 착취를 당했다(Steinbach, 2002: 104).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식민세력은 이슬람권 경제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반(反)식민주의적 저항을 군사적으로 억압하였다. 이 억압은 특히 알제리와 같은 지역에서 극도로 잔인한 모습을 띠었고, 그 결과 서구에 대한 증오라는 역사적 상흔으로 남았다(Ruf, 1997). 많은 아랍인들의 서구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은 이슬람과 기독교, 또는 모슬렘 정통파와 서구 계몽주의 사이의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가 근대 서구와 만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겪은

고통과 치욕의 경험 때문이다. 즉 이슬람과 서구 문명 사이의 긴장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역사적 결과일 뿐이다.¹³

둘째, 자본주의적 모델을 지향했던, 아니면 소련식 현존사회주의 모델을 지향했던 간에 서구로부터 차용한 근대화 전략은 이슬람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의도한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문제들을 악화시켰다. 이슬람권에서도 근대화는 민족주의 및 민족적 동질성에 호소하며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근대화의 결과는 소수의 근대화의 수혜자들과 대다수의 근대화의 패배자들로 사회의 분열이었다. 광범위한 빈곤층의 존재, 높은—특히 청년층에서는 거의 극적인—실업률이 가져오는 절망감은 지켜지지 않은 근대화의 약속에 대한 배반감과 함께 반서구주의, 반민족주의,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은 근대화와 결부된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이 근대화 과정을 담당했던 부패한 정치권력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슬람의 반서구주의는 팔레스타인 문제 및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다. 1977년 이후 리쿠드(Likud) 우파 시온주의자들의 이주정책은 예컨대 헤브론과 같이 아랍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가운데로까지 유대인의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Schreiber et al., 1996: 271). 이스라엘의 공격적 이주정책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음은 물론, 이 지역을 이슬람의 성지로 생각하는 아랍인들에 대한 종교적 모독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특히 극우 시온주의자에 의해 이스라엘의 총리 라빈(Yitzhak Rabin)이 암살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오슬로 협정이 깨진 이후, 이스라엘 점령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악순환은 수많은 무고한 인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극우 시온주의자들의 이주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 부시행정부의 월포위츠(Paul Wolfowitz), 펄(Richard Perle), 페이스(Douglas Feith)와 같은 대표적 친이스라엘 파에 속하는 인물들은 이러한 공격적 이주정책을 오래

13. 헌팅턴(1997)의 문명충돌론은 바로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전부터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Funke, 2003: 109).

넷째,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의 성공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의 축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증대함으로써 상쇄하려 시도해왔다. 걸프만으로 미군함대의 배치, 여러 공군기지들의 구축, 그리고 지상군의 주둔에 이르기까지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강화되었다(Müller, 2003: 41). 특히 이슬람의 성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미군 주둔은 전체 아랍권에서 강한 사회적 거부에 직면해왔다. 빈 라덴조차 이슬람 성지에서 미군의 철수를 - 팔레스타인 문제 및 이라크 봉쇄에 대한 미국 입장의 전환과 함께 - 핵심적인 정치적 목표로 내세웠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지난 20년 동안 아랍 지역에서 주목할 성공을 거두었고,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이슬람교의 이름 아래 이슬람권이 서구 제국주의 침략 이전의 사회통합모델로 회귀할 것을 강조한다. 여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결혼한 여자는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도둑질을 한 자는 다시 손이나 발이 절단되는 벌을 받고, 술 또는 그 밖에 종교적 의식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금지된다. 21세기의 세계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시되는, 그리고 서구적 관점에서 대단히 전근대적으로 보일 이러한 현상들은 그러나 서구의 지배와 충격에 대한 고려 없이 정확히 이해될 수 없다. 근대화와 민족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당연히 서구적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이들은 하등의 민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구성된 이슬람 공동체(umma)를 창출할 것을 의도한다(Steinbach, 2002: 107-108).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의 실현 - 보다 정확히 근대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계획 - 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서구, 특히 미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에게 악의 근원이며, 따라서 타도될 대상인 것이다.

3. 알 카이다의 조직적 특징

오늘날 메가테러리즘의 위협이 특히 알 카이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등장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알 카이다는 빈 라덴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부호를 이데올로기적, 재정적 중핵으로 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된 테러단체들의 연합이다. 알 카이다는 약 60개국에서 활동하는 3,000-5,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약 80개국에서 은신처 및 최신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테러 네트워크는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따라서 재정적 차원에서도 기존의 테러집단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알 카이다에 의해 자행된 테러행위들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새로운 알 카이다”라고 불리는 “이슬람 투쟁전선”이 1998년에 결성된 이후 일어난 끔직한 테러만도 상당수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테러행위가 대단히 ‘혁신적’이라는 사실이다. 알 카이다의 테러행위는 보통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치며, 예상치 못한 수단을 동원해 공격할 뿐 아니라, 한번 활용한 테러방식은 상당 기간 반복하지 않는다. 1998년 8월 나이로비와 다르에스살람에서 동시에 일어난 미국 대사관의 폭파는 물론, 2000년 9월 아덴에서 쾌속정을 이용한 미군 구축함에 대한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 2001년 9월 11일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도 이들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론에서 열거한 2002년 이후 발생한 모든 테러행위들은 알 카이다와 연계된 테러집단에 의해 실행된 것이다.

알 카이다의 기본조직은 14개 이슬람 국가들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테러집단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이 협력관계는 1998년 “이슬람 투쟁전선”이라는 공동의 지붕조직이 결성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알 카이다의 조직은 전통적인 테러집단의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초국적기업의 조직을 연상시키는데, 3개의 단위가 비위계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적 체계로 특징지어진다(Hirschmann, 2003: 62).

우선 빈 라덴을 정점으로 한 지도부가 있다. 이 지도부는 1996년까지 수단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는 지도부와 밀접한 협력 아래 전 세계로부터 온 테러리스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양성소가 있었다. 이 양성소는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통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빈 라덴을 포함한 알 카이다의 지도부와 테러리스트들의 상당수는 미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해 현재는 주로 파키스탄에 잠입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간 단위로 주로 과거의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에 참여했던 전사들로 구성된 개별 국가들의 테러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동조자들을 충원하는 과제를 가진다. 이들에 의해 선발된 ‘후계자들’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보내져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 충원은 아랍권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 특히 유럽에서 빈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기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양성소에서 훈련받았던 인원의 약 1/3 정도가 비아랍권 출신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2001년 가을까지 이 양성소를 거쳐 간 사람은 약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irschmann, 2003: 72).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위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테러그룹이다. 이 테러그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세계 곳곳으로 분산되면서 만들어졌다. 주목할 사실은 이 소규모 테러그룹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알 카이다가 설정한 일반적인 적의 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테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위계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회피된다. 대신 대부분 사업가로 위장한 특정 접촉인물이 세 단위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며, 빈 라덴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전달한다. 따라서 중대한 테러에 있어서조차 테러의 세부적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 예컨대 지도부, 접촉인물, 테러그룹의 대표와 같은 – 로 제한된다. 물론 필요한 경우 지도부는 테러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 병참학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전통적 테러집단과 알 카이다

	전통적 테러집단 (IRA, ETA, PKK 등등)	알 카이다
조직	확정된 조직	확정되지 않은 조직
조직형태	위계적 형태에 가까움	수평적 형태에 가까움
구조	지역적 구조	다국적 구조
테러행위의 질	중간 정도의 난이도	고도의 난이도
테러의 수행형태	지금까지 재래적 형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미비	지금까지 재래적 형태, 향후 대량살상무기의 동원 가능
테러집단의 특성	작거나 중간 정도의 크기, 충원의 권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개인 또는 소규모집단, 국제적 구조에 의존한 높은 충원 잠재력
자발적 대응능력	높음, 적과의 개별적 전투 가능	낮음, 복잡한 테러공격은 12개월에서 36개월에 이르는 준비기간 요구
테러목표	적 체제의 대표자들에 대한 공격	적 체제의 상징적 목표에 대한 공격
행동영역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한정	국제적 수준
행동목표	예측 가능	거의 예측 불가능
희생자	희생자 선별에 심사숙고, 소수의 희생자 수	무관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희생
위협의 강도	제한적	높음
연결형태	상대적으로 취약	강함, 합법적 영리활동은 물론 조직범죄와의 연관
재정	약함, 주로 협박을 통한 자원 조달	강함, 합법적 영리활동 및 국제적 자본이동을 통한 자원조달

출처: Hirschmann, 2002: 39를 참조해 작성.

표 1은 전통적 테러집단과 알 카이다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조직의 특성, 형태, 테러목표, 행동영역, 위협의 강도 등에 있어 알 카이다는 기존의 테러집단과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전통적 테러집단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알 카이다는 세 개의 구별되는 단위에서 작동하는 테러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이의 제압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도 알 카이다의 지도부는 와해되지 않았고, 그리고 설령 지도부가 와해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두 개의 다른 단위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단위에서 알 카이다의 활동능력을

마비시키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메가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위협은 국가세계에서 출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등장하는 문제이다. 지구화는 한편 사회적 균열의 심화를 통해 테러리즘의 잠재적 지지층을 확산시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 노동력의 이주 및 교통·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 이는 지구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을 통해 새로운 위협의 예측할 수 없는 등장을 현실로 만들었다. 9·11테러가 극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 미국의 불가침성이라는 신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은 강대국의 핵무기나 ‘불량국가’의 미사일이 아니라, 단순한 칼로 무장한 일련의 테러리스트들의 경악할 행동이었다.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공격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리고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Czempiel, 2002: 39-40).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테러집단, 즉 사회적 행위자가 시도한 것이다. 오늘날 조직화된 폭력의 위협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화된 사회로부터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안보(security)의 의미는 더 이상 방위(defense)라는 국가간 갈등의 차원에서 정의될 수 없다. 오늘날 국가세계에서 폭력의 사용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다.¹⁴ 이미 오래 전부터 폭력은 사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폭력의 사유화 및 상업화”(Eppler, 2002)가 현 시대의 특징적 모습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안보정책은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복지의 확대 및 정치권력에 대한 참여요구의 수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별 인간들의 경제적 삶의 개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지배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안보가

14.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남한과 북한 정도가 잠재적으로 이 예외에 속할 것이다.

확보될 수 있다면, 경제적 복지의 목표와 안보의 목표 사이에는 더 이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적 안보정책은 더 이상 국방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복지 및 정치적 지배에의 참여를 포괄한다. 요컨대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화는 새로운 안보전략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새로운 안보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김열수, 2002). 특히 메가테러리즘이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해서 완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궁극적으로 메가테러리즘은 그것이 등장한 원인들이 소멸될 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은 원인에 대한 치유라는 원칙 아래 작성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도식적으로 얘기할 때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두말할 나위 없이 테러행위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즉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과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이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은 대부분 비군사적 성격의 것이지만, 그러나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양성소처럼 명백히 확인된 테러집단의 하부구조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파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사적 작전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처방될 때 테러와의 싸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처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요컨대 테러리즘은 전쟁터가 아니라 일상에서만 제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Müller, 2003: 92).

둘째,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중기적 대응은 폭력을 사용할 의사가 있고 또한 사용할 준비가 된 집단들과 대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들은 국가와 달리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경찰적, 범죄학적 작업을 통해 이들의 정체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집단들이 활동하는 국가들 간의 경찰 및 정보부의 밀접한 협력과 정보교환은 이러한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폭력집단들을 감시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경찰적 임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업은 항상 정치적

과제이다. 이는 다시금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전제하는데, 여기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 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폭력집단들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은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failing states)’의 경우이다. 알 카이다가 20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 완전히 혼돈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확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설령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미국의 개입과 무관하지 않다. 소련에 대항에 워싱턴에 의해 훈련된 게릴라 전사들이 소련의 퇴각 이후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이 아랍 지역에 분산된 뒤 미국이라는 새로운 적을 발견한 것이다 (Czempiel, 2002: 58).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수단, 소말리아, 콩고 등의 운명도 서방국가들의 개입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부터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모든 정치적, 군사적 개입은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개입 대상국이 개입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개입 이후의 재건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개입과 동시에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Kaldor, 2000: 207-217).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개입이 명백한 원칙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단순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개입은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메가테러리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메가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에 기초한 대외정치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지역의 안정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다고 해서 폭력집단이나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메가테러리즘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알 카이다와 탈레반은 힌두쿠시의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담 후세인은 사막으로부터 불현듯 솟아난 것이 아니다.¹⁵ 메가테러리즘과의 싸움은 이해관계에 따라 변모하는 선택적 동맹의 기반 위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직 명백한 원칙—폭력의 포기, 극단주의에 대한 싸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 등과 같은—에 기

15. 1980년대에 미국과 서구는 이란에 대항했던 이라크를 지원하였다. 이라크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잠재력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1980년대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바뀌었을 뿐이다.

초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응만이 메가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메가테러리즘에 대한 장기적 대응은 폭력이 등장하는 사회적 원천을 말리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실패한 국가들’의 국가형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장 시급한 과제로부터 보다 공정한 세계질서의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과제까지 여러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된다. 단순히 테러조직이 파괴되는 데서 21세기의 안보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될 때 테러리즘은 소멸할 것이다. 경제적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빈곤이 타파되고 경제적 발전이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적 지배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국가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원조정책과 대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오늘날 개발원조정책은 더 이상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지구화된 사회에서 안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의 일환이다.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국가형성, 지속적인 경제발전, 지배체제의 민주화, 그리고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 과정에의 모든 나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메가테러리즘은 과거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의 세계는 21세기를 메가테러리즘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강봉구. 2002. 「‘글로벌 지하드’: 생성동인과 전쟁양상」.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구춘권. 200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김열수. 2002.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제8권 3호.
 사무엘 헌팅턴. 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에릭 홉스봄. 1997. 『극단의 시대』. 까치.

- Beck, Ulrich. 1997. *Was ist Globalisier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Brunner, Otto. u. a. (Hrsg.) 1990.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and 6. Stuttgart: Klett-Cotta.
- Buchholz, Christine u. a. 2002. *Unsere Welt ist keine Ware*. Köln: Verlag Kiepenheuer & Witsch.
- Czempiel, Ernst-Otto. 2002. *Weltpolitik im Umbruch. Die Pax Americana, der Terrorismus und die Zukunft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München: C.H. Beck.
- Eppler, Erhard. 2002. *Vom Gewaltmonopol zum Gewaltmarkt? Die Privatisierung und Kommerzialisierung der Gewal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Frank, Hans und Kai Hirschmann (Hrsg.). 2002. *Die weltweite Gefahr. Terrorismus als internationale Herausforderung*. Berlin: Berlin Verlag Arno Spitz GmbH.
- Frankfurter Rundschau. 1998. 9. 22.
- Funke, Hajo. 2003. *Der Amerikanische Weg*. Berlin: Verlag Hans Schiler.
- Heine, Peter. 2002. "In Allahs Namen: Religiös motivierter Extremismus und Terrorismus." Hans Frank und Kai Hirschmann (Hrsg.). *Die weltweite Gefahr. Terrorismus als Internationale Herausforderung*. Berlin: Berlin Verlag Arno Spitz GmbH.
- Hess, Henner. 1988. "Terrorismus und Terrorismus-Diskurs." Henner Hess u. a. *Angriff auf das Herz des Staates. Soziale Entwicklung und Terrorismu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Hirschmann, Kai. 2002. "Internationaler Terrorismus gestern und heute : Entwicklungen, Ausrichtung, Ziele." Hans Frank und Kai Hirschmann (Hrsg.). *Die weltweite Gefahr. Terrorismus als Internationale Herausforderung*. Berlin: Berlin Verlag Arno Spitz GmbH.
- Hirschmann, Kai. 2003. *Terrorismus*.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 Hoffman, Bruce. 2002. *Terrorismus - der unerklärte Krieg: neue Gefahren politischer Gewalt*. Frankfurt am Main: Fischer-Taschenbuch-Verlag.
- Jenkins, Brian. 1974. *International Terroism. A New Kind of Warfare*. Santa Monica: RAND.
- Kaldor, Mary. 2000. *Neue und alte Krieg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Laqueur, Walter. 1996. "Postmodern Terrorism."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 Lüders, Michael. 2001. "Blow out ins Paradies. Warum bin Ladens Gotteskrieger lebende Bomben sind." *Frankfurter Rundschau*. 26 September.
- Marty, Martin E. and R. Scott Appleby (ed.). 1991-1995. *Fundamentalisms observ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üller, Harald. 2003. *Amerika schlägt zurück. Die Weltordnung nach dem 11. September*. Frankfurt am Main: Fischer.
- Münkler, Herfried. 2002. *Die neuen Kriege*.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 Münkler, Herfried. 2004. "Ältere und jüngere Formen des Terrorismus." in: Werner

- Weidenfeld (Hrsg.). *Herausforderung Terrorismus. Die Zukunft der Sicherhei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Rieger, Günter. 2002. "Fundamentalismus." Dieter Nohlen und Rainer-Olaf Schultze (Hrsg.), *Lexikon der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Verlag C. H. Beck.
- Ruf, Werner. 1997. *Die algerische Tragödie. Vom Zerschneiden des Staates einer zerrissenen Gesellschaft*. Münster: Agenda-Verlag.
- Scheerer, Sebastian. 2002. "Terroristen sind immer die anderen." Dieter S. Lutz u. a., *Zukunft des Terrorismus und des Friedens*. Hamburg: VSA.
- Schoch, Bruno. 2003. "Warum der politische Islam erfolgreich ist." *Frankfurter Rundschau*. Dokumentation 11 September.
- Schreiber, Friedrich and Michael Wolffson. 1996. *Nahost. Geschichte und Struktur des Konflikts*. Opladen: Leske+Budrich.
- Schröm, Oliver. 2003. *Al Qaida. Akteure, Strukturen, Attentate*. Berlin: Ch. Links.
- Steinbach, Udo. 2002. "Islam, Menschenrechte und Gewalt." in: Dieter S. Lutz u. a. *Zukunft des Terrorismus und des Friedens*. Hamburg: VSA.
- Stiftung Entwicklung und Frieden. 2001. *Globale Trends 2002. Fakten Analysen Prognos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 Tibi, Bassam. 2001. *Die neue Weltordnung. Westliche Dominanz und islamischer Fundamentalismus*. Berlin: Propyläen.
- Tophoven, Rolf. 2002. "Neue terroristische Strukturen: Osama bin Laden und die 'Al-Qaida'." Hans Frank und Kai Hirschmann (Hrsg.). *Die weltweite Gefahr. Terrorismus als Internationale Herausforderung*. Berlin: Berlin Verlag Arno Spitz GmbH.
- Waldmann, Peter. 2000. "Terrorismus als weltweites Phänomen - Eine Einführung." Kai Hirschmann u. a. (Hrsg.). *Terrorismus als weltweites Phänomen*. Berlin: Berlin Verlag Arno Spitz GmbH.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Megaterrorism : The Globalization Shock and Rise of the Islamic Fundamentalism

Koo Choon-Kweon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trends in terrorism and attempts to identify a new type of terrorism that entails mass killing of human lives as ‘megaterrorism’. Megaterrorism understands mass killing of human lives as a strategic goal, not as a by-product of the terrorist act. In this sense, megaterrorism is a new type of terrorism in which the logic of violence becomes independent from the logic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legitimati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errorism and inflow of religious fundamentalism in terrorist groups are important factors that promote the megaterrorism. The emergence of megaterrorism is related to two connected phenomena. The changes in the last decades under the heading of globalization dramatically enlarged social clefs. And these clefs are the social background of religious fundamentalism on a global scale. Nevertheless, to analyze the distinct success of the Islamic fundamentalism, we should examine seriou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Arabic region.

Key Words: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Globalization, Islamic Fundamentalism,
Al Qaida